

주민소통공간 '오색단풍 이야기센터'

무주 적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1월 준공 무주교육지원청 '방과 후 마을학교' 운영기관 선정

무주군 적상 오색단풍 이야기센터가 주민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주군은 적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주민복지 커뮤니티공간인 '오색단풍 이야기센터'가 무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22 방과 후 마을 학교' 운영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2022 방과 후 마을학교'는 적상 오색단풍이야기센터에서 교육 경험의 장소를 학교 밖으로 확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선정·운영해 오고 있다. 적상 오색단풍이야기센터는 농촌 지역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1월

준공됐다. 이곳에서 적상면의 다양한 연령계층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목을 받았다. 적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모 선정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주요 프로그램은 '힐링 악기 앙상블', '함께 노래해', '휴이랑 놀자' 목공예를 활용한 '나도 디자이너'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작가들과 함께 기초에서 심화과정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이종현 과장은 "오색단풍이야기센터를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아이들의 생활문과 경험과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주민 스스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모에 선정돼 지역의 아이들과 주민의 활동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적상면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주군 적상 오색단풍 이야기센터가 주민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계남 작은도서관 10일부터 정식 운영

장수군은 계남 작은도서관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로써 장수군은 장수, 번암, 계북, 천천, 산사에 이어 계남면까지 모든 면에 작은 도서관 조성을 완료했다. 계남 작은도서관은 지난 2월 14일 개관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1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계남작은도서관은 계남면 행복나눔

터 부지 내 2층에 105㎡의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일반도서 및 아동도서 자료실, 프로그램실 등이 갖춰져 있다. 특히 유아도서부터 성인도서까지 1,706권의 양질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어 도서 열람·대출은 물론 지역 주민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정식개관 이벤트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책갈피 나눔'과 '도서 대

출 두 배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장수군립도서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민들이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도서관을 정보 제공은 물론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마을회관 욕실정비 사업 추진

무주군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회관 욕실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을회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설 중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욕실에 대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군은 이를 위해 올해 초 마을회관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1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 중순부터 마을회관의 욕실정비를 진행한다. 대

상은 무주군 관내에 있는 마을회관 221개소이며, 최근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화장실 정비를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사업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군은 마을회관을 방문하는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로 욕실(화장실) 이용 시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낙상사고, 찰과상, 골절상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한 치료기간과 비용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마을회관 욕실 정비사업은 욕실(화장실)의 일반타일을 미끄럼방지 할 수 있는 타일로 교체하고 추가적으로 고령자의 이용특성을 반영한 벽면 안전손잡이 설치까지 진행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19의 방역지침에 따라 무주군 관내 마을회관이 잠정 폐쇄되면서 이용이 불가능해 이 기간 동안 욕실정비를 통해 차후 마을회관이 개방된 이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전주 KCC이지스 '맞손'

공동 홍보 협력 방안·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협력키로

진안군은 7일 전주KCC이지스(단장 최형길)와 도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와 상호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주KCC이지스 홈경기에서 업무 협약을 갖고, 홍보·마케팅 업무에 협력하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맞손을 잡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진성 진안군수와 전주KCC이지스의 이정현, 송교창 선수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공동 홍보 협력 방안,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이로 인해 전주KCC이지스는 경기장에서 심화과정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전진성 군수는 "전북도내 지자체를



연고지로 하고 있는 농구구단과 홍보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농구, 축구, 역도 등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진안홍삼과 스포츠의 연계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가속도

무주군이 적상면 일원 농어촌마을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일대 주민들의 하수에 따른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청결한 주거 환경이 뒤따를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와 사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하수도 증설사업이 올해 10월 완공 목표로 사업의 교배를 담기고 있다. 이 사업은 77억9,200만 원을 들여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공사, 맨홀펌프장 등을 추진한다. 군은 그동안 동절기를 맞아 중단한 사업을 지난 4월부터 재개하고 오는 7월까지 하수처리장공사를 완료한 후 10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펼쳐왔다. 앞서 군은 무주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 20년 첫 삽을 떴다. 하수처리장 증설과 사산리 마을의 하수관로 확장을 거쳐 전체 공정을 67%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사업은 하수관로 총길이 7.7km, 맨홀 펌프장 7개소 설치와 배수설비 등을 갖춰 일일 190톤의 하수 처리가 가능해 176 가구가 하수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에 하수처리구역 확장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로 적상면 하수처리 구역의 오수를 적정 처리하면서 수질보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에도 기대된다. 또 깨끗한 하수처리 시설 확대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도 뒤따를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신혼부부 야외결혼식 지원 사업 추진

진안군은 관내 관광지에서 야외결혼식을 거행하는 신혼부부에게 25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진안군 야외결혼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야외결혼식 유치를 통해 관내 관광 명소 및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군은 결혼식 운영업체 선정을 완료했으며, 모집 대상은 3월부터 11월까지 결혼식을 진행할 예비신부부 8명이다. 결혼식은 관내 문화관광명소인 산악 초타운, 마이돈테미공원, 명인명품관, 용담호변, 부귀면 메타세쿼이아길 중

예비부부가 희망하는 장소를 선정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할 예비부부는 별도의 자격은 없으나 피로연으로 관내음식점을 이용해야 하며 결혼식 후에는 SNS, 블로그,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한 진안군 관광홍보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결혼식 당일에는 '진안군 코로나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비부부는 결혼식 장소 세팅 및 진행과 관련해 부부당 최대 250만원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어린이집 7개소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장수군은 관내 어린이집 7개소 305여 명 영·유아에게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배부된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1차분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1인당 2개씩 1,150개를 배부했다. 장수군은 관내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가 발생하더라도 보육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고 있다.

전국적인 수급난으로 배부 일정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군은 3월 둘째 주부터 다섯째 주까지 신속항원검사 키트 물량을 확보하는 대로 매주 어린이집을 통해 재원 이동 및 보육 교직원들에게 신속항원키트를 추가로 배부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키트를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지원으로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안전 관리로 보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벼 병해충 피해 농가 복구 지원

무주군이 '이삭도열병' 등 벼 병해충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벼 흉수기였던 지난해 8월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 일조시간 부족 등의 기상 악화로 인해 대규모의 병해충 피해가 발생했으며 총 373.54ha(808농가) 중 '재난지수' 100미만 농가 등을 제외한 총 694농가에 3억 9백여만 원을 지급(국·도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군비) 1억1백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가별 지원 규모는 피해정도를 계산한 '재난지수(재난지수 300이상 피해농가 278농가 /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피해농가 416농가)'에 따라 다르며 농가별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4백만 원까지 받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